

임기영 이탈에도... KIA 마운드 걱정 없다

페렘에 엔트리 말소... 정용운·고효준 등 자원 풍부

이범호·김주찬 복귀로 타격 상승세... 마운드 보완



‘셋발’ 임기영이 두 번째 완봉승을 남기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

8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 앞서 KIA 타이거즈의 엔트리 교체가 있었다.

각각 허벅지와 손목 부상으로 빠졌던 ‘전·현직 캡틴’ 이범호와 김주찬이 나란히 1군으로 복귀했고, 대신 외야수 이진영과 투수 임기영이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잘 나가는 임기영의 갑작스러운 말소는 페렘 때문이다.

임기영은 전날 친정 한화를 상대로 9회 무실점의 호투를 하면 첫 선발 시즌에서 두 번째 완봉승을 기록했다. KIA의 한 시즌 두 차례 완봉승은 지난 2012년 윤석민과 서재응에 이어 처음이다.

7일 경기가 끝난 뒤 “이번에는 완봉승에 욕심이 났었다. 내가 더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할 정도로 임기영의 의욕이 넘쳤지만 8일 경기점진 과정에서 페렘 진단이 나오면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앞서 임기영은 지난 5월 18일 잠실 LG전에서 감기몸살 증세를 보이며 ‘관심 선

수’가 됐다. 그러나 이날도 6이닝 1실점의 호투 속에 9-4 경기의 승리투수가 되면서 시즌 6승째를 거뒀다.

이후 김기태 감독이 선발 찾해 체력적인 부담 등을 고려, 선발 로테이션을 거르는 등 휴식을 줄 계획도 세웠지만 임기영이 ‘이상무’를 의지하면서 선발 등판 날짜를 미루는 것으로 선발진 재정비를 했다.

지난 6일 우천취소까지 더해 충분한 휴식 뒤 완봉승까지 기록했던 임기영이지만 페렘 진단이 나오면서 KIA는 멀리 보고 가는 방향으로 선택했다. 임기영은 이날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한 뒤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김기태 감독은 “본인은 훈련을 하겠다며 괜찮다고 하더라. 쉬는 동안 운동하겠다고 튜빙이랑 글러브를 챙겨갔다”고 말했다.

임기영이 빠지면서 다시 선발 한 자리

고민이 시작됐다. 다행히 ‘비상 상황’은 아니다.

임기영의 상태가 양호한 데다 지난 4일 대구 원정에서 9년 차 정용운의 깜짝 승을 통해 선발진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5선발까지 맞춰놓았다. 부진으로 선발진에서 탈락한 김진우를 대체할 좌완 고효준도 있다. 또 일단 비로 한 경기씩 등판 날짜가 밀리면서 이번 주는 선발 공백 경기가 없다.

마운드를 보완해줄 타격도 있다. 최근 전체적인 타격 상승세 속에 경험 많은 이범호와 김주찬도 복귀했다.

김기태 감독은 “이번 주는 선발 로테이션에 문제가 없으니까 (김진우의 선발 등판 여부는) 중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2군에서) 수혈을 할 수도 있다”고 차분하게 임기영의 공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공은 내가 잡았지롱” 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경기에서 8회초 피츠버그의 마담 존스의 홈런 볼을 볼티모어 불펜 선수가 잡고 있다. 앞은 피츠버그 중견수 앤드류 맥커친. 한편 볼티모어는 연장 10회 타진 마크 트롬보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6-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선발 생존’... 12일 신시내티전 출격

‘괴물투수’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선발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8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을 앞두고 “알렉스 우드가 11일, 류현진이 12일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대신 마에다가 불펜으로 간다”고 정리했다.

시즌 초 부진때문에 불펜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던 류현진은 우드가 10일짜리 부상자명단(DL)에 올라가며 다시 선발 마운드에 설 기회를 얻었다.

1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류현진은 6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7이닝 4실점으로 호조를 이어갔다.

특히 워싱턴전에서 류현진은 구속(시속 151km)과 투구 횟수(7이닝), 투구 수(102구) 모두 2015년 수솔 이후 ‘베스트’를 찍었다. 선발투수로 가치를 입증한 류현진은 우드의 복귀 이후에도 선발진에 잔류하게 됐다. 류현진의 시즌 성적은 10경기(9선발) 2승 6패 53이닝 평균자책점 4.08이다.

대신 올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마에다가 선발진에서 밀렸다. 마에다는 이번 시즌 10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 3패 52⅓이닝 평균자책점 5.16으로 다저스 선발진에서 가장 성적이 떨어진다.

류현진의 선발 경쟁이 끝난 건 아니다. 특히 최근 2경기 모두 4이닝만 소화하며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갔다.

지난달 26일 세인트루이스전 선발 마에다(5이닝 3실점)와 불펜 류현진(4이닝 무실점)은 불과 13일 만에 자리를 바꾸게 됐다.

류현진의 선발 경쟁이 끝난 건 아니다. 당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선발진에 잔류했지만, 향후 결과에 따라 언제든 자리가 바뀔 수 있다. /연합뉴스

필 미켈슨 “US오픈보다 딸 졸업식 참석”

“쉬운 결정이었다”...팬들은 ‘졸업식 연기’ 청원

필 미켈슨(47·미국)이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에 불참하고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쉬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미켈슨은 8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 세인트루드 클래식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나는 US오픈을 사랑하지만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올해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은 16일 미국 위스콘신주 에리에서 개막하는데 미켈슨은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바드에서 열리는 장녀인 어맨다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기로 했다.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US오픈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미켈슨이지만 미려없이 딸의 졸업식을 택해 화제가 됐다.

미켈슨은 “어디에 가느냐를 놓고 이야

기를 한 적도 없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맨다가 졸업식에서 연설도 하게 됐다”고 자랑하며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1994년부터 US오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미켈슨을 위해 일부 팬들은 온라인에서 ‘어맨다 졸업식 행사 연기 청원’ 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미켈슨은 2013년 US오픈에도 어맨다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1라운드 시작 2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는 강행군을 마다치 않았다.

1999년 US오픈에서는 아내 에이미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무전호출기를 착용하고 대회에 나왔다.

또 2009년에는 유방암으로 투병하는 아내 병간호를 위해 투어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등 애절한 가족 사랑을 보였다.

/연합뉴스

9년만에 첫 승 정용운

“내 경기 모습 답답하더라”

우익수 휴업 이명기

“좌익수로 옮겨 공 하나 처리”

덕아웃 T 특목

▲센스 없다

지난 7일 경기가 끝난 뒤 ‘안방마님’ 김민식이 최형우에게 핀잔(?)을 들었다. 이날 김민식은 사이드암 임기영과 배터리를 이뤄 팀의 7-0 승리를 이끌었다. 선발로 나온 임기영이 9회까지 무실점으로 책임지면서 완봉승으로 끝난 경기. 초보 선발 임기영의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이기도 했다. 최형우는 “끝나고 가서 기영이 번쩍 들어 올리는 거라서 주목 인사만 하고 있다. 센스 없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전·현 캡틴에 대한 예우도 있고
8일 전 캡틴 이범호와 현 캡틴 김주찬이 나란히 1군에 복귀했다. 두 사람은 각각 허벅지와 손목 부상으로 재활한 뒤, 지난 7일 2군에서 첫 경기를 소화했다. 8일 임기영이 페렘 진단으로 엔트리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날 2군 경기에 선발로 나선 두 사람은 경기 도중 1군으로 콜업됐다. 김기태 감독은 “가위바위보라도 해서 한 사람 먼저 와서 1군 경기까지 소화하고, 한 사람은 2군 경기 하고 쉬고 오라고 하려 했더니 둘 다 오겠다고 하더라. 전·현직 캡틴에 대한 예우 문제도 있다 (웃음)”며 두 사람의 동반 등장에 관해 설명했다.

▲티 내면 안되요
1루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포지션이다. 특히 KIA 1루수는 까다로운 송구의 내야진들로 업무 난이도가 높다.

▲그런 날도 가끔 있어요
우익수 이명기의 임시 휴업날이었으나 이명기는 지난 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우익수 겸 2번 타자로 출전했다. 이날 한화 타자들이 33타석에 들어서 공격을 했지만 단 하나의 공도 우익수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다. 이명기는 “가끔 이렇게 공이 오지 않는 날도 있다. 경기 막판에 좌익수로 자리를 옮겨서 공 하나 처리하고 끝났다”며 웃었다. 수비는 쉬어갔지만 이명기는 타석에서 2루타 포함 멀티히트로 1타점을 올렸고, 불넷과 상대 실책으로 4차례 출루에 성공하는 등 테이블 세터 역할을 완벽 수행했다.

▲답답하게 던지더라고요 = 9년 만에 승리투수가 된 정용운의 경기 감상평은 “답답하다”였다. 자신의 첫승 경기 영상을 돌려봤다는 정용운은 “경기할 때는 불넷을 주더라도 막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경기했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 왜 불넷을 주고 있나 답답하더라(웃음). 다음 등판 때는 불넷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경기하겠다”며 “지난 경기보다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준비 잘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그런 날도 가끔 있어요
우익수 이명기의 임시 휴업날이었으나 이명기는 지난 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우익수 겸 2번 타자로 출전했다. 이날 한화 타자들이 33타석에 들어서 공격을 했지만 단 하나의 공도 우익수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다. 이명기는 “가끔 이렇게 공이 오지 않는 날도 있다. 경기 막판에 좌익수로 자리를 옮겨서 공 하나 처리하고 끝났다”며 웃었다. 수비는 쉬어갔지만 이명기는 타석에서 2루타 포함 멀티히트로 1타점을 올렸고, 불넷과 상대 실책으로 4차례 출루에 성공하는 등 테이블 세터 역할을 완벽 수행했다.

▲답답하게 던지더라고요 = 9년 만에 승리투수가 된 정용운의 경기 감상평은 “답답하다”였다. 자신의 첫승 경기 영상을 돌려봤다는 정용운은 “경기할 때는 불넷을 주더라도 막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경기했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 왜 불넷을 주고 있나 답답하더라(웃음). 다음 등판 때는 불넷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경기하겠다”며 “지난 경기보다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준비 잘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그런 날도 가끔 있어요
우익수 이명기의 임시 휴업날이었으나 이명기는 지난 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우익수 겸 2번 타자로 출전했다. 이날 한화 타자들이 33타석에 들어서 공격을 했지만 단 하나의 공도 우익수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다. 이명기는 “가끔 이렇게 공이 오지 않는 날도 있다. 경기 막판에 좌익수로 자리를 옮겨서 공 하나 처리하고 끝났다”며 웃었다. 수비는 쉬어갔지만 이명기는 타석에서 2루타 포함 멀티히트로 1타점을 올렸고, 불넷과 상대 실책으로 4차례 출루에 성공하는 등 테이블 세터 역할을 완벽 수행했다.

김국영 24일 ‘10초 12’ 재도전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

전국육상 출전 “컨디션 90%... 기록 단축 자신”

한국 육상 남자 100m의 간판 김국영(26·광주광역시청)이 24일부터 닷새간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런던 세계선수권대회 기준 기록에 재도전한다. 김국영은 이번 레이스에서 세계선수권 출전 기준 기록인 ‘10초12’ 통과를 노린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자신이 작성한 한국기록(10초16)보다 0.04초 빨라야 오는 8월 런던에 갈 수 있다.

현재 광주 월드컵경기장 트랙에서 훈련 중인 김국영은 8일 “현재 컨디션은 90%까지 올라왔다”면서 “2주 후 KBS배 대회에서 기록 단축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김국영은 광주 트랙과 정선 운동장의 트랙이 ‘기록의 산실’이자 ‘마법의 양탄자’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몬토사의 제조 트랙이라며 기록 달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직 기준 기록을 찍진 못했으나 김국영은 “계획에 맞춰 기록을 계속 줄여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5월 종합대회에서 10초47로 몸을 풀 김국영은 지난 2일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30으로 0.17초 줄이고 우승했다.

이 페이스라면 KBS배 대회에서 10초 2대 또는 10초 1대 진입도 가능해 보인다.

김국영은 “선수가 잘 뛰어야 하는 것은 물론 뒷바람(풍속 2.0m/S 이하)과 환경이 잘 맞아 떨어져야 100m 신기록이 가능하다”면서 “당면한 목표인 세계선수권대회 기준 기록을 꼭 통과하고 싶 다”고 했다.

김국영은 과거 남자 110m 허들 간판으로 현재 플레잉코치로 뛰는 박태경



(37·광주광역시청) 코치와 지난해부터의기투합해 훈련 일정을 짜고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김국영은 “오랫동안 함께 태극마크를 단 동료이자 선배이며 지금은 같은 소속 팀 코치로 호흡도 잘 맞는다”고 했다. 박 코치의 지도로 김국영은 스타트 후 큰 동작으로 지면을 세계 밖이 그 탄력으로 가속하는 주법으로 바꿨다.

스타트 총성 후 빠른 반응으로 스타트 블록을 치고 나가 그 관성으로 달리던 그간 주법과 비교하면 아직은 어색하다고 한다.

그러나 김국영은 “새 주법으로 더 좋은 기록이 나와 몸에 잘 익으면 한국기록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5월 종합대회 후 전담 트레이너를 김국영에게 불러 기록 단축을 도왔다.

김국영은 “평소 자세, 식사 습관 등 사소한 문제들을 트레이너의 조언으로 고쳤다”면서 “이런 습관의 교정으로 기록도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국영은 “한국신기록도 중요하고 그보다도 9초대 진입에 사활을 건 중국·일본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도 절감하고 있다”며 수년째 한국 단거리 대표로 활약하는 선수다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김국영은 과거 남자 110m 허들 간판으로 현재 플레잉코치로 뛰는 박태경